「언어연구」, 제24권 제1호(2007), 25～42

문법격 조사는 격조사인가?*

고길수
(파리7대학 언어학과/형식언어학연구소)

KO, Kil Soo. 2007. Are There Really Grammatical Case Postposition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24(1), 25-42. This paper presents tries to show that the so called grammatical case postpositions in Korean may not be case postpositions and that they can be analysed without resort to the case feature. The case allows for the explanation of the basic function, i.e. marking the syntactic function but these postpositions show the properties that are not expected as case element and so that make the analysis difficult: the combination with semantic case postpositions but not with 'eun/neun' and 'do' which can be added to the latters, the compatibility with non case categories like adverb and the double case constructions. These properties can be analysed with ease and properly by another feature that is MARKING. As non case postpositions, they can be added to case but also to non case categories. Postpositions with this feature cannot combine with each other by supposing that this feature restricts that the complement do not have it. Double case constructions are now analysed as double marking constructions. And finally verbs and nouns define this feature's value of their arguments and modifiers, and they constrain the distribution of marking postpositions. **(Université Paris 7/Laboratoire de Linguistique Formelle)**

Keywords postposition, grammatical case postposition, case, grammatical case, semantic case, feature MARKING, weak head,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1. 서론

우리는 흔히 문법격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조사들의 기능과 행태가 격 정보 없이도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통사론에서 격이란 명사구가 핵이 되는 성분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인 관계 또는 기능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1] 문법격은 핵 성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되는 격을 말하고 문법격 조사는 문법격을 부여하거나 외적으로 표현

* 졸고를 검토하고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1 격 범주는 통사 뿐만 아니라 형태, 의미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광정 1999 참조)

하는 언어 요소이다.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문법격 조사는 주어 또는 보어의 '이/가'와 목적어의 '을/를'이다. 이외에도 명사구 내부에 나타나는 보어 또는 수식어에 부착되는 '의'와 문장의 직접적인 성분이 아닌 독립언임을 알리는 '아/야'도 문법격 조사로 언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조사가 명사구와 핵 사이의 특정한 통사 관계 또는 기능을 부여하거나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가'가 부착된 성분은 목적어일 수 없고 '을/를'이 부착된 성분은 주어나 보어로 해석되지 못 한다.

그런데 이들 조사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의심을 품게 된다. 격 표지라면 격이 없는 범주에 부착되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러한 예측은 빗나간다. 격 부여에 관한 제약에 따르면 다른 격 표지와 공기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확인된다. 오히려 격 표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일부 특수조사와 양립할 수 없는 양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이들 조사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문법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조사의 기능과 행태가 격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HPSG 문법에서 사용되는 MARKING (Sag외 2003, Abeillé 외. 2003, 2004.) 자질을 도입하여 조사를 설명해볼 것이다. 이 자질은 핵이 되는 성분이 자신이 선택하는 종속 성분에 요구하는 제약 가운데 하나이다. 즉 동사와 통사 기능에 따라 다른 조사가 선택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자질은 통사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의 생략과 중출, 격이 없는 범주에의 실현 등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자질을 일부 특수조사에 부여하면 이들과의 비양립 양상도 설명될 수 있다.

2. 조사와 격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는 주로 명사구에 부착되는 언어 단위로 격조사와 비격조사로 구분된다. 격조사는 명사구의 통사 기능을 표현하는 단위이고 비격조사는 통사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격조사는 다시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로 나뉘는데, 전자는 고유한 의미가 없이 오직 문법 관계나 기능만을 부여 또는 외적으로 발현하는 단위이고 후자는 고유한 의미가 있어 이를 통해 선행성분에 통사 기능을 부여하는 단위이다.

한국어에서 문법격 조사(이하 조사로 표기)는 '이/가'와 '을/를'이 대표적이다. '이/가'는 문장의 주어나 보어에 나타나고 '을/를'은 목적어에 나타난다. 이외에 명사구 내부에 실현되는 명사구 보어나 수식어에 부착되는 '의'와 문장을 직접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독립언의 '아/야'도 문법격 조사의 예로 언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법격 조사는 대체로 주격, 보격, 목적격, 관형격(또는 속격), 독립격(또는 호격)을 표현한다.

(1) a. 철수가 왔다.
b.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거니?
c.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
d. 영희의 동생을 만났다.
e. 철수야, 얼른 집에 돌아가거라.

이들은 통사 기능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그 형태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이/가'는 오직 주어나 보어에만 나타나고 또한 주어와 보어는 다른 형태의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2) a. 철수-{가+*를+*의+*야} 왔다.
b. 대통령-{이+*을+*의+*아} 되다.
c. 밥-{*이+을+*의+*아} 먹다.
d. 영희-{*가+*를+의+*야} 동생을 만나다.
e. 철수-{*가+*를+*의+야}, 얼른 집에 돌아가거라.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들 조사는 명사구의 통사 기능을 표현하는 격조사로 간주되었다. 반면 조사가 통사 기능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임홍빈 1999, 임동훈 2004 등은 조사가 격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명사구는 격이 없으므로 위에 제시한 통사 기능을 갖지 못 한다고 하였다. 반면 생성문법을 받아들인 논의는 대체로 격과 통사 기능은 동사와의 관계나 문장 구조상의 자리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관점에서 격과 통사 기능은 조사의 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부여되고 조사는 단지 이를 외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가 격조사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 조사는 통사 기능을 나타내는 격조사로서 격 정보를 포함한다. 격 자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는 통사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명세된 격 자질을 가지는 명사구만이 문장에 투사되고, 요구되는 값과 어긋나는 격 자질을 가지는 명사구가 나타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지 않더라도 격 자질은 앞서 언급한 통사 기능에 따른 조사의 형태 제약을 설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된다. 거꾸로 개별 조사가 가지는 격 자질을 통해 조사가 부착된 명사구의 통사 기능을 결정할 수도 있다.

(3) a. 철수가 만났어.
b. 철수를 만났어.

'만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인데 (3)에서는 하나의 명사구만이 나타나므로 이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a)에서는 '철수가'의 '가'를 통해 주어임이, (b)의 '철수를'은 '를'을 통해 목적어임이 드러난다. 아울러 명세된 격 자질은 다른 격 자질을 갖는 조사의 출현을 방지한다. 때문에 하나의 명사구에 '이/가'와 '을/를'이 동시에 부착되지 못 한다.

(4) a. 철수-*{가를+를이} 왔다.
b. 밥-*{을이+이을} 먹었다.

3. 격조사로서의 문제점

앞에서 조사가 통사 기능을 표현하는 역할을 가지고 이 역할을 격 정보를 부여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조사에 격 정보를 포함시키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들이 발견된다. 물론 기존 논의들은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 정보가 조사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에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3.1 다른 격과의 공기

2에서 밝힌 것과 같이 조사의 격 자질은 다른 격 자질과의 공기를 방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문법격 조사 사이에서만 완전하게 확인될 뿐, 이른바 의미격 조사라고 불리는 일련의 형태들과의 결합은 허용된다.

(5) a. 글을 쓰는 행위는 그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만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b. 만날 장소는 근처 커피숍에서가 좋겠다.
c. 예전에 살던 집이 며칠 전부터 계속 꿈에가 보인단 말이지.
(6) a. 철수가 학교에를 갔다.
b. 철수가 인형을 영희에게를 주었다.
c. 그림을 벽에를 걸어라.
d. 나는 그를 꿈에서를 보았다.

e. 철수는 영희를 집으로를 보냈다.

특히 의미격 조사와의 공기 현상은 관형격 조사인 '의'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명사구에 나타나는 명사 보어와 수식어에 의미격 조사가 바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7) a. 최근 일본으로의 밀항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b. 요즘은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므로 기내에서의 에티켓 몇 가지는 기억해 두자.
c. 컴퓨터에의 일시적 저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 램에의 일시적 저장을 의미한다.
d. 당신의 취직 활동을 돌아보고 후배에게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 일탈과 자기 파괴를 통해 지옥같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었던 천재 시인의 시집.

의미격 조사와의 공기 양상에 대해 대체로 두 가지 해법이 제시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의미격 조사 뒤에 나타나는 조사를 비격조사로 보는 것이다. '이/가', '을/를', '의'는 그 분포에 따라 격조사와 비격조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의미격 조사 뒤에 나타났다고 하여 모두 비격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5a-b)와 (7)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들은 격조사로서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인다. (5)에서 '그 자신에게가'와 '근처 커피숍에서가'는 분명 동사에 의해 선택되는 논항이며, 이들 논항에 부착된 '가'는 다른 형태로 대치되지 못 하고 생략되지 않는다. (7)에서도 '의'를 생략하면 더 이상 다른 명사구에 종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 제시된 해법은 두 개의 격조사가 공기하는 것으로 보지만 의미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가 계층성이 달리한다는 것이다. 계층성은 조사 간 어순 제약으로 드러난다. 의미격 조사가 부여하는 격은 명사구 내부에 국한되지만 문법격 조사로 표현되는 격은 명사구 전체의 기능, 즉 핵 성분과의 관계를 밝히기 때문에 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생성문법에서는 의미격 조사는 내재격을 부여하고 문법격 조사는 명사구가 형성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외적으로 부여된 구조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격 이론의 기본 전제를 위배하고 있어 여전히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통사론에서 격은 명사구의 통사 기능을 표현하는 범주이다. 하나의 명사구에 두 개의 격조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명사구가 두 개의 통사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하나의 명사구는 핵 성분에 대하여 하나의 통사 기능만을 가진다. 핵 성분 또한 자신의 종속 성분에 하나의 통사 기능만을 부여한다. 따라서 언어 사실에 대

한 분석이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을 뒤집는 꼴이 되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는 듯하다.

아울러 문법격 조사는 일부 비격조사와 결합하지 못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들 비격조사는 의미격 조사와 아무런 문제 없이 결합하므로 격 정보는 이들의 제한된 결합 양상을 설명해 주지 못 한다.

(8) a. *철수-{가+를+의+야}-{는+도}
    b. *철수-{는+도}-{가+를+의+야}
(9) a. 학교-{에+에서+로+로부터}-{는+도}
    b. *학교-{는+도}-{에+에서+로+로부터}

3.2 격이 없는 범주와의 공기

격 자질을 포함하는 조사는 격을 가질 수 있는 범주와 결합한다. 반대로 격을 가질 수 없는 범주와는 양립하지 못 한다. 다시 말해, 조사는 부사와 같은 범주 뒤에 부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빗나간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검색된 예들이다[2].

(10) a. 국민이 골고루가 잘 산다.
    b. 이런 복합적으로 쓰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계획으로 발표했다는데 의의가 매우가 크다고 하겠고,
    c. 철수는 영희네 집에 자주를 드나들었다.
    d. 아기는 잠을 잘을 잤다.
    e. 너는 빵집 아들이니 빵은 실컷을 먹겠구나.
    f. 식단 메뉴가 맛있고 골고루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g. 은창은 지금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로 마음을 먹는다.

부사구 뒤에 부착되는 현상이 명사구에서와 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존 논의는 부사에 부착되는 조사도 비격조사로 간주한다. 즉, 명사구에 부착되면 격조사이고 부사구 뒤에 부착되면 비격조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사가 논항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때 조사 형태가 제한되고 생략되

[2] 아래의 예문들에 나타난 부사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사 용법이 제시되지 않다.

지 않는 등 격조사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11) a. 여하튼 하루는 제대로 빈둥빈둥을 해볼까 합니다.
b. 벌레들이 꿈틀을 거린다.
c. 무게가 많이를 나간다.
(12) a. 나는 홀로가 좋다.
b. 그렇게 자주가 아니라 가끔씩 드나들었다.

위의 예문에서 부사구가 논항인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생략될 수 없는 성분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들 부사구 뒤에 나타나는 조사는 그 형태가 제한되어 다른 조사가 대신 나타나지 못 한다. 사실 조사 형태가 제한되는 현상은 논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8)에서도 관찰된다. 나아가 (10)에서 부사구에 부착된 조사는 생략되지 못 한다.

이와 더불어 부사 가운데 수량을 표현하는 것은 수량 명사구와 대치될 수 있다.

(13) a. 밥을 많이를 먹었다.
b. 밥을 한 그릇을 먹었다.

(a)에서 '많이를'이 표현하는 수량은 (b)에서와 같이 명사구로도 나타날 수 있다[3]. (b)에서 '한 그릇을'은 동사뿐만 아니라 목적어인 '밥을'과도 관련되며 목적어와 같은 형태의 조사를 가진다. 즉 목적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적어 기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부착된 '을/를'도 어느 정도 격 정보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의 부사구에 나타난 '을/를'이 완전히 격 정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을 가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부사 가운데 일부가 격 정보와 양립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된다.

3.3 조사의 중출

마지막으로 한국어에는 (13b)에서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여러 성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구성들이 발견된다.

---

[3] 물론 부사구와 명사구와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이 직접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량 명사구가 담당하는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이다.

(14) a. 얼음이 물이 된다.
b. 철수가 영희가 좋다.
c. 철수가 사과를 영희를 주었다.
d. 산이 나무가 많다.
e. 철수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f. 철수가 영희를 성격을 좋아한다.

조사가 격 정보를 가지고 통사 기능을 나타낸다면 조사의 형태가 같은 성분들은 모두 격 정보와 통사 기능이 같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한 문장에서 여러 성분이 동일한 격과 통사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분들 사이에 다른 점이 발견되고 있어 통사 기능이 다르다고 분석한다.[4] 이로써 한 문장 내에서 동일한 격과 통사 기능이 중출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보어라고 알려진 (a)를 제외하면 각 성분이 담당하는 통사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b)-(d)의 경우 조사가 동일한 두 성분 모두 동사의 논항인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언급되어온 통사 기능들에 대입하기가 쉽지 않다. (e)와 (f)는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첫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과 긴밀한 의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성분의 논항인 듯한데 문장 층위에서 실현되고 있다. 더구나 첫 번째 성분은 문장 층위에서 통사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는 반면 동사의 논항인 것이 확실한 두 번째 성분은 여러 가지 제약을 보인다.[5] 아울러 (d)-(f)와 관련하여 주제 성분 또는 초점 성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주제나 초점이 과연 통사 기능이나 통사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4. MARKING 자질과 조사의 행태

3에서 조사에 격 정보를 부여하면서 만나게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조사를 통사 기능이나 격 개념과 긴밀하게 관련짓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격 개념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조사에서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격 중출 관련 논문들을 참조할 것.

5 첫 번째 성분과의 어순 제약과 관계절의 머리어 명사가 되지 못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관련 논문 참조.

격 정보를 제거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격 자질을 제거하고 HPSG 문법의 MARKING 자질을 도입하여 조사의 기능과 행태가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4.1 MARKING 자질

HPSG 문법은 언어 기호가 가지는 정보를 자질 구조로 명세한다. 기호들이 결합하면서 핵과 종속 성분이 나뉘고 핵은 종속 성분에 일정한 자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법은 이를 핵 성분이 종속성분의 자질을 포함하는 자질 구조 공유(structure sharing)로 표상한다. 이러한 결합 관계에서 통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질들은 핵 자질(HEAD)를 통해 표현되는데, 범주 자질(CAT), 격 자질(CASE), 형태 자질(FORM), MARKING(이하 표지 자질) 등이 포함된다. 간단한 예를 보자.[6]

(15) 명령하다

$$\begin{bmatrix} \text{SUBJ} < \text{NP}[\text{CASE } \textit{nom}] \\ \text{COMPS} < \text{NP}[\text{CASE } \textit{dat}], \text{VP}[\text{FORM } \textit{inf} \text{ - 라고}] > \end{bmatrix}$$

위에서 CASE는 명사구의 격 정보를, FORM은 동사구를 구성하는 동사의 법형태 정보를 표상한다. 즉, 동사 '명령하다'는 하나의 주어와 2개의 보어를 선택하는데, 주격을 갖는 명사구를 주어로, 여격 명사구와 '부정법-라고' 형태의 동사구를 보어로 갖는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표지 자질을 좀 더 살펴보자. Abeillé외 2003, 2004에서는 불어에서 *de*가 나타나는 구는 그 범주에 상관없이 모두 *en*으로 대명사화되는 것이 동일한 표지 자질을 부여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불어에서 *de*는 통사적 행태에 따라 전치사와 비전치사로 나뉜다.

(16) a. *un film dont je me souviens [de la fin ___].
한 영화 관계사 내가 기억한다 [de 마지막 __]
내가 끝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화
b. J'ai besoin [de [cette farine et cette levure]].
내가 필요하다 [de 이 밀가루 그리고 이 효모]
나는 [이 밀가루와 이 효모]가 필요하다.

---

6 이후 조사에서 격 정보를 제거함에 따라 CASE 값은 수정된다. 또한 FORM의 '라고'는 임시로 준 자질값으로 MARKING 값이 될 가능성이 있다.

(17) a. un livre que je ne me souviens pas [d'avoir lu __].
한 책 관계사 내가 부정 기억한다 부정 [de 읽었다 __]
내가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책
b. *On nous a apporté plein [de [pain et vin]].
그가 우리에게 가져왔다 많은 [de [빵 그리고 포도주]]
우리에게 많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Abeillé외 2004의 예문 (1)-(2), (5)-(6)에서 발췌)

(16)의 전치사 *de*는 내부 성분의 추출을 막는 섬 제약을 유발하고 자신의 영역(scope) 안에 대등 접속 전체를 아우를 수 있지만 (17)의 *de*는 섬 제약을 유발하지 않고 대등 접속 구성에서는 각 항에서 반복되어야 하므로 전치사가 아니다.[7] 즉 (16)은 전치사구이고 (17)은 전치사구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en*으로 대명사화된다. 이것은 구의 범주나 격, 통사 기능(16a와 17a는 한 동사의 같은 논항을 보여준다)과 같은 자질이 대명사 형태를 결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국 구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de*가 대명사의 형태를 *en*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표지 자질로 표상할 것을 제안한다.[8]

요약하면 표지 자질은 CASE나 FORM과 달리 특정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자질은 구의 형태적인 특성을 표상하지만 형태 정보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구의 통사적인 행태를 결정하지만 그렇다고 통사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4.2 조사의 MARKING 자질값

이제 조사에 표지 자질을 부여하고 자질값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문장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모든 조사를 유형을 막론하고 약 핵어(weak head)[9]로 간주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핵어로써 조사는 통사 층위에서 구를 논항으로 선택, 결합하여 이에 후행하고 자신의 통사/의미 기능을 상위 구조에 투사한다. 그러나 약 핵어인 조사는 핵 자질이 완전하게 명세되지 않는다. 조사는 자질구조 공유를 통해 자신의 논항으로부터 명세되지 않은 핵 자질-예를 들어 범주 자질-을

---

7 (15)의 비전치사구는 후행하는 구의 범주에 따라 전체 범주가 결정된다. 즉 (a)는 동사구이고 (b)는 명사구가 된다.

8 불어에서는 부정관사와 부정수량사가 나타나는 명사구도 en으로 대리되는데 이들에게도 *de*를 표지 자질값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복수 부정관사와 부분관사를 제외하면 de 형태가 드러나지 않지만 부정문에서 한정사가 de로 바뀌고 N′를 추출하면 *de* N′가 되는 것을 통해 *de*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약 핵어에 대해서는 Abeillé외 2003, 2004, Tseng 2002 등 참조.

승계하고 이를 상위 구조에 투사한다. 이로 인해 상위 구조는 조사의 선행구와 일정 부분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10] 아울러 조사와 격을 분리하면서 조사 형태에 따라 격을 세분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격을 직격(direct case)과 사격(oblique case)으로 나눈다. 직격은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으로 나타나는 명사구가 가지는 격이고[11] 사격은 간접 목적어나 수식어 명사구가 가지는 격이다. 직격은 명사에 내재하고[12], 사격은 의미격 조사가 부여한다.

조사에 표지 자질을 부여하면 그 값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조사 형태는 앞에서 보인 것과 같이 구를 선택하는 핵어에 따라 다르게 제한된다. (2)는 기능에 따라 오직 하나의 조사만이 허용되고 나머지가 모두 배제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표지값은 조사의 형태에 따라 '이, 을, 의, 야'로 세분된다. '이'와 '을'은 동사의 논항으로 나타나는 성분이, '의'는 명사구에 나타나는 논항 성분이, '야'는 독립어 성분이 가지는 표지값이다. 이 자질값들은 조사에서 상위 구조로 투사된다. 간단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8) a. 철수: HEAD[*n*, CASE *direct*]
b. 많이: HEAD *adv*
c. 를: HEAD 1, MARKING *을–marked*, COMPS < [HEAD 1] >
(19) a. 철수를: HEAD[*n*, CASE *direct*], MARKING *을–marked*
b. 많이를: HEAD *adv*, MARKING *을–marked*

(18)은 명사, 부사, 조사의 자질 구조이고 (19)은 명사와 부사에 조사가 결합한 구의 자질 구조이다. (18c)에서 조사 '를'은 1로 표기된 논항의 핵 자질값을 공유하고 표지 자질을 추가한다. 따라서 직격 명사구와 결합하면 (19a)와 같은 '을' 표지값을 가지는 직격 명사구를 형성하고 부사구와 결합하면 (19b)와 같은 '을' 표지값을 가지는 부사구를 형성한다.

이후 조사가 결합한 구는 이를 선택하는 동사 등의 핵어와 결합을 하게 된다.[13] 이때 핵어는 자신과 결합하는 종속 성분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데,

---

10 조사를 약핵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KO in press 참조.

11 직격과 안 1966의 부정격은 다르다. 부정격은 세분된 여러 격을 아우르는 상위격 또는 통합격 개념인데 반해 직격은 여러 개의 하위격으로 세분되지 않는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는 격과 통사 기능이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12 직격이 명사구 내재하지 않고 명사에 직접 주어지는 모종의 절차를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격 조사 다음에 다른 조사가 부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조사가 이미 격을 가지는 명사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격은 조사 결합 이전에 부여된 것으로 보아 굳이 직격 부여 절차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13 '야' 표지를 가지는 독립어는 단독으로 형성되므로 핵어에 의한 제약은 없다. 그러나 독립어 생성 규칙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 규칙을 통해 표지 제약을 표상할 수 있다.

표지 자질도 그 중 하나이다. (19a)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20) 만나다:
SUBJ<NP[HEAD|CASE *direct*] 또는
NP[HEAD|CASE *direct*, MARKING *이-marked*]>
COMPS<NP[HEAD|CASE *direct*] 또는
NP[HEAD|CASE *direct*, MARKING *을-marked*]>

(20)은 동사 '만나다'가 주어와 목적어에 가하는 제약 정보를 보여준다. 주어로 직격 명사구 또는 '이' 표지값을 가지는 직격 명사구가 올 수 있고 목적어로는 직격 명사구 또는 '을' 표지값을 가지는 직격 명사구가 온다. (19a)는 '을' 표지값을 가지는 직격 명사구이므로 '만나다'의 주어는 되지 못 하지만 목적어로는 나타날 수 있다.

동사나 명사에 따라 종속성분에 요구하는 자질 제약은 다를 수 있는데, 표지 자질도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21) 되다:
SUBJ<NP[CASE *direct*] 또는
NP[CASE *direct*, MARKING *이-marked*]>
COMPS<NP[CASE *direct*] 또는
NP[CASE *direct*, MARKING *이-marked*]>
(22) 동생:
COMPS<NP[CASE *direct*] 또는
NP[CASE *direct*, MARKING *의-marked*]>

(21)의 동사 '되다'도 두 개의 직격 명사구를 논항으로 가지지만, '만나다'와는 달리 보어에 '이' 표지값을 요구한다. 따라서 (19a)의 '을' 표지 명사구는 '되다'의 보어로 나타나지 못 하지만 (18a)의 '철수'와 같은 직격 명사구는 나타날 수 있다. (22)는 '동생'이 명사 핵어가 되어 자신의 논항에 가하는 제약으로 직격 명사구나 '의' 표지를 가지는 직격 명사구를 보어로 선택한다.

4.3 MARKING과 조사의 행태

다음으로 3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의미격 조사와의 결합, 격이 없는 범주에의 부착, 조사의 중출 현상이 표지 자질을 통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조사의 결합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문법격 조사끼리는 결

합하지 못 하고 의미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는 공기하는 반면 일부 비격조사는 문법격 조사와는 결합하지 못 하지만 의미격 조사와는 결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편향된 공기 현상은 의미격 조사와 공기하지만 문법격 조사와 공기하지 못하는 비격조사에 표지 자질을 부여하면[14] 표지 자질을 통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즉, 명세된 표지값을 가지는 조사끼리는 결합하지 못 한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명세된 표지값을 가지는 조사가 논항의 표지 자질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도식화될 수 있다.

(23) 조사: MARKING *marked*, COMPS < XP[MARKING ¬*marked*] >
(*marked*는 4.2.에서 세분한 모든 표지값을 아우르는 상위값에 해당한다.)

(23)은 조사가 명세된 표지값을 가지면 그 논항은 명세된 표지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법격 조사가 부착된 구는 다른 문법격 조사의 논항으로 나타날 수 없다. 반면 의미격 조사가 부착된 구는 표지 자질이 없으므로 문법격 조사의 논항으로 허용된다.[15] 아울러 문법격 조사는 격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의미격 조사와의 결합은 더 이상 격 이론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6c) '벽에를'의 예를 살펴보자.

(24) a. 벽: HEAD[*n*, CASE *direct*]
b. 에: HEAD[CASE *oblique*]/①, COMPS < NP[HEAD ①] >
c. 를: HEAD ①, MARKING *을*, COMPS < NP[HEAD ①] >
(25) a. 벽에: HEAD[*n*, CASE *oblique*]
b. 벽에를: HEAD[*n*, CASE *oblique*], MARKING *을*-*marked*

(25)는 명사구가 의미격 조사, 문법격 조사와 결합한 예를 보여주고, (24)는 이에 참여하는 하위 성분들의 자질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에'와 '를'은 공지표 ①을 통해 논항으로부터 핵 자질값을 공유한다. 이때, 전자는 고유한 격 자질값을 가지므로 논항의 격 자질값을 승계하지 않고, 후자는 승계받은 핵 자질 외에 표지 자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25a)의 '벽에'는 '에'가 투사한 사격 정보를 갖지만 범주는 조사의 논항과 같은 명사이다. 여기에 '를'이 결합한 '벽에를'은 (25b)와 같이 '벽에'로부터 범주와 격을, '를'로부터 표지를 이어받는다.

다음으로 격이 없는 범주와의 결합을 살펴보자. 조사는 격 정보를 가지지

14 '은/는, 도'의 표지값에 대해서는 KO in press 참조.

15 이로써 의미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 사이의 어순 제약이 간단하게 설명된다. 어순 제약에 대한 다른 설명은 임 2004, 황 2003, Ahn 1988 등 참조.

않으므로 논항을 더 이상 격을 가지는 범주로 제한하지 않는다. 조사의 표지 자질은 모든 범주와 양립하므로 논항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부사구와 결합할 수 있다. 조사는 자신의 표지 자질과 부사구로부터 승계한 핵 자질을 상위 구조로 투사할 뿐이다. 상위 구조는 여전히 부사구이며 격 정보를 가지지 않지만 표지 정보를 갖는다(4.2의 19b). 나아가 명사구에 부착되는 조사와 부사구에 부착되는 조사를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어진다. 두 용법을 별개로 처리한 것은 격 정보 때문이었는데, 이를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사구에 부착된 조사는 없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조사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데, (10f-g)와 (12)가 그러하다.

(10‘) f. 식단 메뉴가 맛있고 골고루-{의+*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g. 은창은 지금 그대로-{의+*ø}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로 마음을 먹는다.
(12‘) a. 나는 홀로-{가+*ø} 좋다.
b. 그렇게 자주-{가+*ø} 아니라 가끔씩 드나들었다.

(10f-g)는 부사구가 명사의 수식어로 나타난 경우이고 (12)는 부사구가 동사의 논항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부사구가 핵 성분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핵 성분은 본래의 제약을 대신하여 표지 자질을 강제한다. 명사는 대체로 관형사나 직격 명사구, 관형형 동사구를 수식어로 허용한다. 부사구는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식어로 나타나지 못 한다. 이것을 구제하는 것이 ‘의’가 전하는 표지 자질이다. 즉 명사는 범주나 격 자질 대신에 부사구 논항에 ‘의’ 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므로 표지 자질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16] (12)의 경우도 동사는 직격 명사구나 명사형 동사구를 선택하고 따라서 부사구는 나타나지 못 한다. 그러나 ‘이/가’가 부착된 부사구는 허용되는데, 동사가 범주와 격 자질 완화하는 대신 ‘이/가’ 표지 자질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는 부사구만이 논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의미격 조사와 결합한 사격 명사구가 나타날 때에도 확인된다. 사실 명사구나 동사구가 직격을 가지면 조사 없이도 실현되므로 동사가 ‘이/가’ 표지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사가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직격이라는 격 자질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수적이던 ‘이/가’ 표지 자질이 논항의 자격 조건으로 전환된다.[17]

16 참고로 ‘의’는 명사 수식어로 나타나는 직격 명사구에도 부착된다.

(26) a. COMPS <[CASE *direct*]>
b. COMPS <[CASE ¬*direct*, MARKING *marked*]>

명사구 내부에 나타나는 사격 논항 명사구의 '의'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명사가 논항 명사구에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제약은 직격이고 조사 '의'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데 의미격 조사가 부착된 명사구는 사격을 가지게 되어 명사가 요구하는 격 자질을 충족하지 못 한다. 이때 명사는 부차적이었던 '의' 표지 자질을 통해 사격 명사구의 실현을 구제하고, 이때 표지 자질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27) CAT *n*
a. COMP <NP[CASE *direct*]>
b. COMP <NP[CASE *oblique*, MARKING *marked*]>

마지막으로 조사 중출 현상은 여러 성분이 같은 표지 자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지 자질은 격이나 통사 기능과 무관하다. 따라서 통사 기능이 다른 여러 성분이 같은 표지 자질을 가지는 것이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14)가 보여주듯이 허용되는 조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14') a. 얼음이 물-{이+*을} 된다.
b. 철수가 영희-{가+*를} 좋다.
c. 철수가 사과를 영희-{*이+를} 주었다.
d. 산-{이+*을} 나무가 많다.
e. 철수-{가+*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f. 철수가 영희-{를+*이} 성격을 좋아한다.

(a)-(b)의 동사는 두 개의 직격 논항을 선택하고 두 논항 모두에 '이/가' 표지를 허용한다. (c)의 동사는 세 개의 직격 논항을 선택하는데[18] 주어가 되는 논항에는 '이/가' 표지를 허용하고 다른 두 논항에는 '을/를' 표지를 허용한다. (d)의 동사(또는 형용사) 역시 두 개의 직격 논항을 가지는데[19] 두 논항에 '이/가'

---

17 (18-19)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보어 정보만을 표상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18 이 동사가 보이는 격 교체 양상은 동사가 두 개의 논항구조를 갖는 것으로 처리한다.

19 주제화나 초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3.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개념이 통사 기능으로

표지를 용인한다. 따라서 (a)-(d)의 사례는 모두 동사의 자질구조를 통해 논항의 표지 자질값을 제약하면 쉽게 처리된다. 반면 (e)-(f)는 3.3에서 밝힌 바과 같이 좀 경우가 다르다. 조사가 동일한 두 성분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엄밀하게 말해 동사가 선택하는 논항이 아니다. 의미적으로 두 번째 성분과 관련되며 두 번째 성분에 종속된 형태로 출현할 수 있다.

(28) a. [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b. 철수가 [영희의 성격을] 좋아한다.

따라서 두 번째 성분의 논항이었던 것이 모종의 과정을 거쳐 문장 층위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14e-f)는 첫 번째 성분이 두 번째 성분과 동일한 지표를 가짐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사격 중출 사례를 살펴보자.

(29) a. 철수가 학교-{에서+*에+*로}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b. 철수가 프랑스-{에서+*에+*로} 파리에서 떠났다.
c. 철수가 프랑스-{*에서+에+로} 파리에 간다.[20]
d. 철수-{에게+*로} 동생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29)에서도 동일한 조사를 가지는 첫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의 논항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문장 층위의 성분으로 나타나면 두 번째 성분과 동일한 의미격 조사를 가진다. (14e-f)의 경우와 통합하면 첫 번째 성분이 문장 층위로 투사되면서 두 번째 성분의 격과 표지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된다[21].

5. 결론

우리는 문법격 조사라고 일컬어지는 '이/가, 을/를, 의, 아/야'를 대상으로 이들이 과연 격 정보를 포함하는가 의문을 제기한 뒤 격 정보를 배제하고도 이들 조사의 기능과 행태를 설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조사의 격 정보는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구의 통사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부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 선행구의

설정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20] "철수가 프랑스에 파리로 간다"는 '에'와 '로'의 의미기능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두 개의 논항이 따로 실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 명사구의 논항이 문장 층위에 실현되는 과정과 자질 공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KO 2004 참조.

범주에 따라 하나의 형태를 격조사와 비격조사로 구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격 정보를 대신하여 표지 자질을 도입하였다. 이 자질을 통해 조사의 통사 기능과의 관련성은 물론 여러 범주와의 결합, 조사의 편향된 공기 현상과 중출과 같은 현상들이 모두 설명될 수 있었다.

이들 조사를 설명하는 데에 격 정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격 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본다.

참고문헌

서태길. 1999. 핵어문법에서의 격,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월인.

안병희. 1966. 부정격의 정립을 위하여. *동아문화* 6.

이광정. 1999. 전통문법에서의 격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월인.

임동훈. 1991. 격조사는 핵인가?. *주시경학보* 8.

임동훈. 2004. 격조사 분류와 결합에 대하여. *국어학* 43.

임홍빈. 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1.

한정한. 2003. 격조사는 핵이 아니다. *한글* 260.

황화상. 2003.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국어학* 42.

Abeillé, A., D. Godard, O. Bonami, and J. Tseng. 2003. The Syntax of French à and de: An HPSG Analysis. In Patrick Saint-Dizier (ed.), *Proceedings of the ACL-SIGSEM Workshop on the Linguistic Dimensions of Prepositions and Their U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Formalisms and Applications*, 134-144. Toulouse: IRIT.

Abeillé, A., D. Godard, O. Bonami, and J. Tseng. 2004. The Syntax of French de-N′ Phrases. In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6-26. Stanford: CSLI Publications.

Ahn, Hee-Don. 1988. Preliminary Remarks on Korean NP, in Papers from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1-15.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and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Ont.

KO, Kil Soo. 2005. L′analyse des Constructions à Double ou Multiple Cas du Coréen en HPSG. *Atelier des Doctorant en Linguistique*, Université Paris 7.

KO, Kil Soo. in press. Les postpositions du Coréen en HPSG.

Sag, I., T. Wasow and E.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Tseng, Jesse. 2002. Remarks on Marking. in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Publications.

고길수
Université Paris 7/Laboratoire de Linguistique Formelle
E-mail: gogiri72@linguist.jussieu.fr

접수일자: 2007. 04. 05
게재일자: 2007. 06. 20